

엔딩

너희는 추리를 정리해 관계자들을 모아 추리 내용을 발표한다..... 그러나 몇 명으로부터 추리의 허점을 지적받고, 검증 결과 그 추리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끝났다. 결국 경찰은 천장에서 떨어져 내려온 검은 옷의 남자야말로 【랏테일】이라고 결론 내리고,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린다.

주위를 둘러보니 【감정사】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지만, 아마도 오랜 시간 붙잡혀 있어 피로했을 것이고,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것일 거라며 관계자들은 웃었고, 그 자리에서 해산하게 된다.

경찰은 다음 날 「【랏테일】을 체포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며칠 뒤, 같은 미술관의 다른 미술품이 도난당하고, 현장에는 「어리석은 경찰 여러분. 【랏테일】은 보시다시피 아직 잡히지 않았다. 좀 더 즐겁게 해주거나」라는 편지가 남겨져 있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감정사】를 제외한 모든 관계자들은 얼굴을 새빨강게 물들이며 분통을 터뜨렸다.

END

(이 PDF를 닫고 '진행'을 클릭해 주세요.)